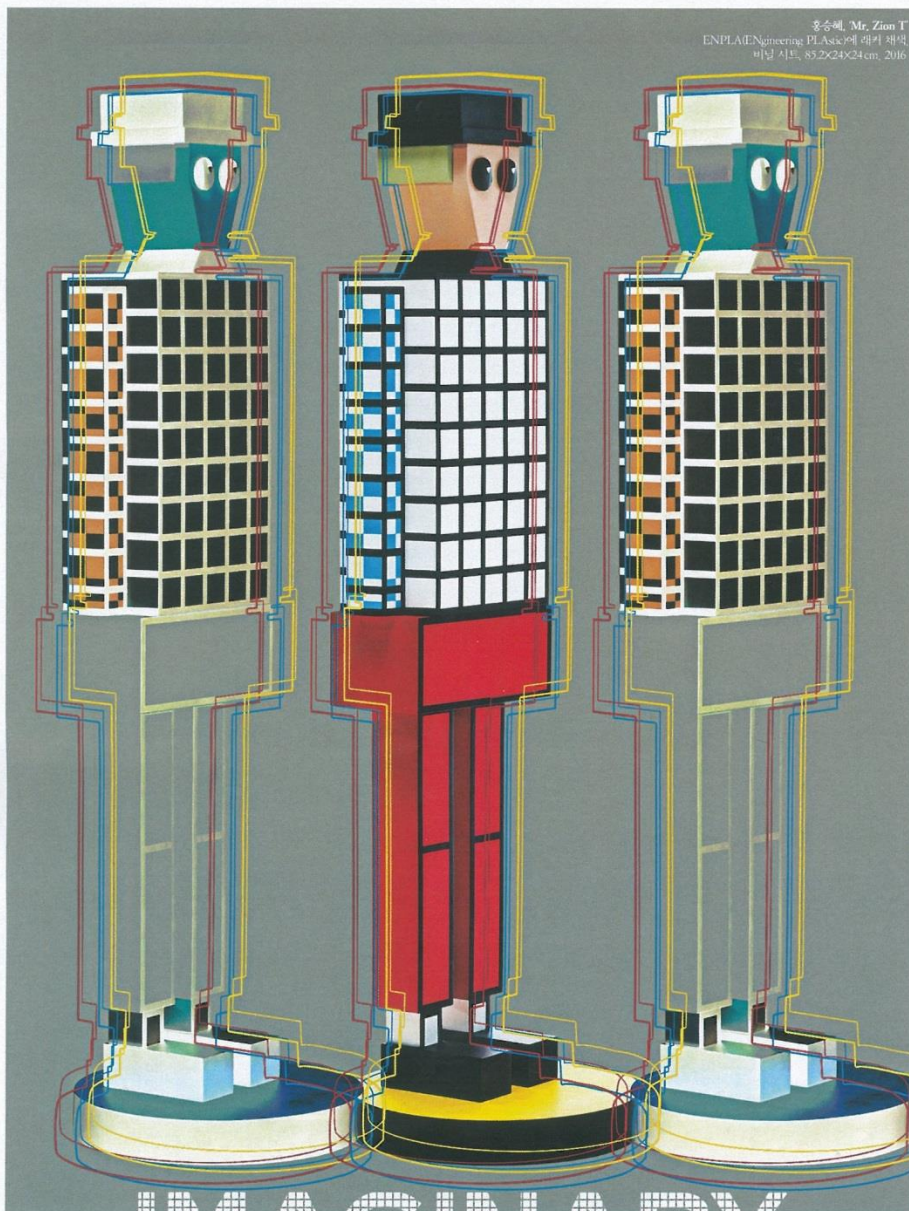


IMAGINARY MAN

January , 2017 | 이예진, 황선우 에디터

page 1 of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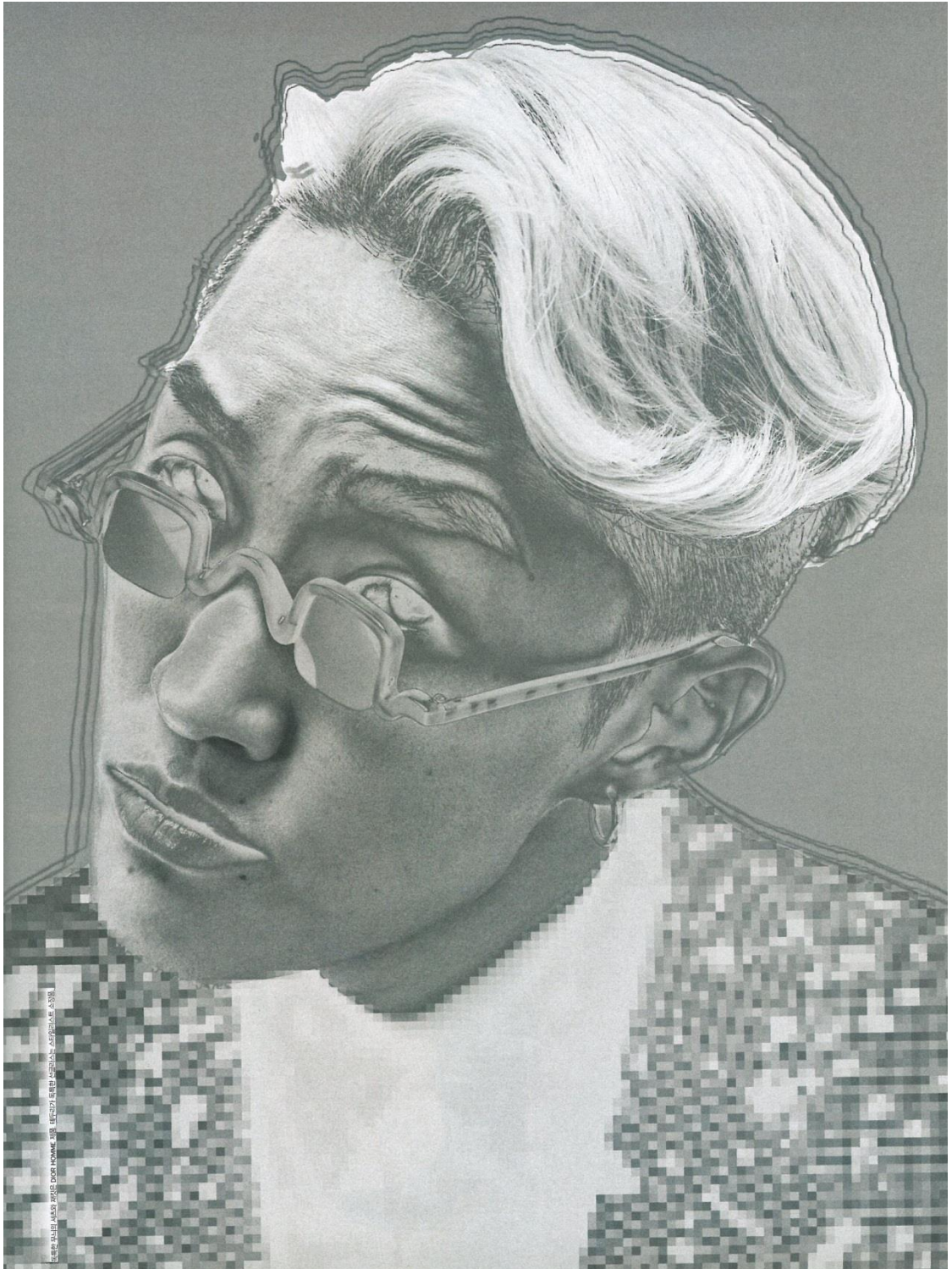


홍승혜, 'Mr. Zion T'
ENPLA(Engineering Plastic)에 레이저 채색
비닐 지브, 85.2x24x24cm, 2016

IMAGINARY MAN

홍승혜 작가의 미래적인 시선으로 구현한 자이언티의 또 다른 자아.

photographs by JANG DUK HWA
artwork by LVT



© 2018 JAMES M. WILSON. ALL RIGHTS RESERVED. PHOTOGRAPH BY ANDREW H. WILSON



톤 다운된 면두색 싱글 버튼 코트와
화백 슈트, 밝은 황색 셔츠,
진한 황색 타이, 구두는
모두 **Hugo Boss**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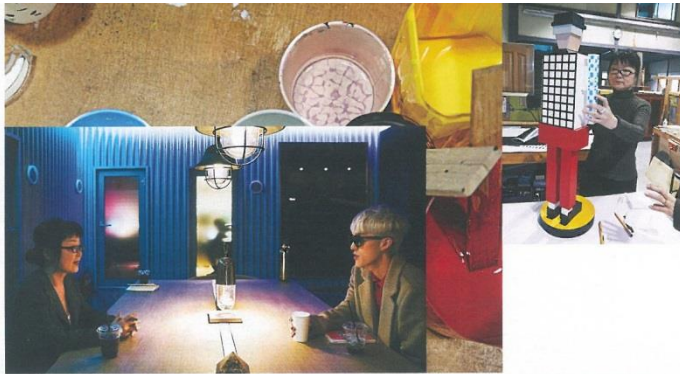






PHOTO: JAMES BROWN; MUSICIAN: JEFF ALLEN; ARTIST: MARIANNE BLOOM

픽션 에디터 | 이연진
픽처 에디터 | 황선우
스타일리스트 | 권종환
헤어 | 에이코업 | 미장원 by 태연
어시스턴트 | 오지은



자이언티 + 홍승혜

더블유 아트 프로젝트에 참여를 결정하면서 같이 작업하고 싶은 셀레브리티를 먼저 지명한 미술가는 홍승혜 작가가 유일했다. 그 인물은 바로 자이언티, 대개의 아티스트들처럼 연예인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자이언티에게 예외적인 호기심을 가진 당연하게도 음악 때문이었다.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양화대교'는 단숨에 인생의 어떤 장면을 펼쳐놓았고, 노래를 들으며 정서적으로까지 움직이는 경험은 대중가요 가사에서 한 번도 기대하지 않은 일이었다. 삶의 페이스를 압축하면서도 경쾌한 리듬과 멜로디의 균형감을 잃지 않는 이 뮤지션은 아티스트 홍승혜에게 신기하고 놀라운 존재로 기억되었다. 진중하지만 간결하고, 신중하게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이로, 자이언티가 새 앨범 녹음을 위해 연이어 밤을 새우던 가을의 어느 날, 자정을 향해 가는 늦은 시간에 당인동 블랙 레이블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두 사람의 만남은 분야를 뛰어넘은 예술가들이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우정 어린 교류의 자리가 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알수록 팬이 되어간다는 사실은, 프로젝트 전체에 좋은 동력이 되어주었다.

"도시의 이미지를 좋아해요. 60년대 뉴욕을 특히 동경하고요, 커다란 슈트를 입은 흑인들, 벽돌 벽과 창문이 이루는 격자의 풍경, 거리 속으로 스며드는 재즈와 담배..." 자이언티는 자신을 구성하는 취향에 대해 털어놓았고, 홍승혜 작가는 들으며 종종 끄덕이거나 낭랑하게 깔깔 웃거나 했다. 사실 컴퓨터로 형상을 단순화해 픽셀을 쌓아 올리는 작업을 하는 이 아티스트가 자이언티를 어떻게 미분시켜버릴지는 에디터를 전전공공 고심하게 만든 걱정거리기도 했다. 디테일이 다 축소한 사람 모양의 픽트그램이 달랑 하나 탄생할지도 모를 일 이었는데, 어쨌거나 인물을 반영한 조각 작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는 드러나지 않는 결과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편 작가들은 서로 얼 쉼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어가자는 지근거리로 공감해가기도 했는데, 평소 스타일을 잘 알고 있는 홍승혜 작가가 자이언티와 찍을 이었다는 소식을 접한 권오승 작가는 이런 명언을 남겼다. "홍 선생님이 점을 하나 찍어놓고 자이언티라고 제목을 붙이면 정말 맞지 않아요?"

다행히 하나의 점 대신 두 개의 원이 중심이 되었다. 안경을 끼지 않고서는 사진을 찍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팬들 또한 안경 사진에 자이언티를 태그할 정도로 안경은 그를 떠난다는 중요한 모티프다. 스포일러라 될 수 있어 자세히 밝히지는 않지만 새 앨범에서도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이 안경이라는 소재가 홍승혜 작가에게도 하나의 키워드가 되었다. 미니멀한 2D의 도면을 후면으로 쪽 연장한 듯 보이는 형태의 3D 조각은 실제 렌즈를 드러낸 안경을 쓰고 있으며, 모자의 정수리와 어깨는 도물게 쏟아지는 조명을 받고 있다. 한편 투르스 부분은 모든 입체와 건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그리드로 표현되었다. "컬러까지 마음에 꼭 드는대요? 펄피스 디자인 스타일이네요." 완성된 작품을 보고 자이언티가 말했다. 기하학적 형태, 위트 있는 원색적 색채로 대변되는 70년대 디자인 사조를 언급할 것을 전혀 몰고 흥 작가는 자기가 본 자이언티의 해박함과 센스가 역시 틀리지 않았다 더 다시 한번 감할 못했다. 디테일은 사라졌지만, 극도로 미니멀한 이 조각을 본 누구나 이 건 자이언티라며 알아냈다.

작가 노트

작품명 *Mr. ZION T's Miss Kim*을 비롯한 자이언티의 고풍하고 낭만적인 음악 세계와 시가 세계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사물을 단순한 원초적 형태로 환원시키는 나의 '유기적 기하학' 작업을 토대로 자이언티의 초상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평면적 2D 그래픽을 3D로 확장해 만든 결과물은 흥미로운 형태의 왜곡을 낳는 동시에 마치 그림이 현실 속으로 걸어 나온 느낌을 줍니다. 자이언티의 도시적이고 북고적인 취향을 바탕으로 그리드 패턴, 색채를 구사했습니다.

안소희 + 김기라

김기라 작가는 더블유에서 제안한 아트 프로젝트가 단지 셀러에 대한 오마주가 아니라 아티스트와 아티스트 사이의 동등한 협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배



우 안소희를 그저 달게 재현하는 대신 자신이 구성하는 상상의 콘셉트를 제시하고, 연기를 요청했다. 마치 걸리버 여행기의 대인국 파트처럼 안소희의 실물이 그 모습 그 비율대로 축소되는 설정이다. "세상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녀는 절대 고분고분하지 않죠" 영화 *(부신행)*과 드라마 *(인투리치)*로 연기하는 모습이 점점 친숙해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걸그룹의 귀여운 멤버로 각인되어 있던 그의 이미지를 비틀고 뒤집는 요구였다. 색사해 보이는 것과는 거리가 먼 속옷을 입고, 보는 이들의 시선에 지지 않고 내용을 어떤 여자의 피규어는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수동적으로 재현하며 대상화하는 혼란 태도에 도전했다. 안소희는 이런 시도에 대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1차 미팅 이후 3D 피규어 제작을 위한 360도 촬영이 이루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손끝에서 '한뼉 한뼉' 장인처럼 작품을 완성해가는 고전적 아티스트에 대한 환상을 갖지만 심은 현대 미술 작가들은 도면을 그리고 감리하는 건축가에 가깝다. 실제로 벽돌을 쌓고 콘크리트를 부어 굳히는 시공사는 따로 있는 것이다. 김기라 작가의 시공사는 말하자면 3D 피규어 스튜디오였다. 피사체를 둘러싸고 출몰한 간격으로 배치된 카메라들은 서터를 누르는 순간 동시에 인체를 전방위로 촬영하고, 이 수백 컷의 사진 데이터를 가지고 3D 출력물을 하게 된다. 김기라 작가의 연출에 따라 안소희가 조금씩 다른 포즈와 표정을 연기했고, 서너 번의 촬영 끝에 의외의 사인이 나왔다. 이 피규어를 길고 좁은 철반에 올려 높이 설치하는 것으로 김기라 작가의 의도는 완성되었다. 배우 안소희의 또 다른 자기가 관객을 응시하고 있었다.

작가 노트

배우 안소희와의 협업으로 완성된 3D 프린트 조각은 불안하고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남긴다. 흔히 소녀에게 기대되는 온순함이나 순수성과는 거리가 먼 히스테리컬함을 띠고 신난 위에서 관객을 응시하도록 연출하고 설치했습니다. 위태로운 경계에 선 안소희의 조각은 걸리버의 여행기처럼 초현실적 상황에 직면하거나 자신을 응시하는 또 다른 시선과 조우합니다. 인물을 미니이치 피규어로 축소한 스케일은 거대한 가치 체계에 맞서 싸우는 작은 다윗의 몸을 연상시킵니다. 의자가 강지와 싸우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스스로의 약점을 무기로 바꾸는 것입니다.